

보도자료

이 자료는 4월 21일 10:00부터 취급하
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제 목 : 「2026 구미 지역발전 세미나」 개최

-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(본부장 김주현)는 구미상공회의소(회장 윤재호)와 공동으로 4월 21일(화) 「2026 구미 지역발전 세미나」를 개최
 - 주제 : 글로벌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한 구미 주력산업의 단다·똑디 발전 전략
 - 장소 : 구미상공회의소 2층 대강당
- 한국은행 김주현 대구경북본부장의 개회사, 구미상공회의소 윤재호 회장의 환영사 및 정성현 구미시장 권한대행의 축사에 이어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

붙 임 : 1. 「2026 구미 지역발전 세미나」 개요
2. 「2026 구미 지역발전 세미나」 발표자료의 주요 내용

※ 본 세미나의 발표내용은 발표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.

문의처 :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경제조사팀 과장 김미주, 조사역 박흥규
Tel : (053)429-0253, 0255 Fax : (053)429-0219 E-mail : daegu@bok.or.kr

“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보도자료는 한국은행 홈페이지(<http://www.bok.or.kr>)의 지역본부-대구경북본부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.”



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

(붙임 1)

「2026 구미 지역발전 세미나」 개요

I. 세미나 개요

- 주제 : 글로벌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한 구미 주력산업의 단다·뚝디 발전 전략
- 일시 : 2026년 4월 21일(화) 10:00 ~ 12:00
- 장소 : 구미상공회의소 2층 대강당(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120)
- 주최 :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, 구미상공회의소

II. 세미나 진행 순서

개 회 사	김주현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장
환 영 사	윤재호 경북(구미)상공회의소 회장
축 사	정성현 구미시장 권한대행
사 회	김현기 KBS대구방송총국장
발 표	- 「구미 주력산업의 수급 변화 및 공급망 충격과 지역경기의 연계 성 분석: 반도체·방산·이차전지를 중심으로」 (김성수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) - 「구미 주력산업(반도체, 방산 등)의 AX 전략」 (최은빈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구미정책기획연구소 소장)
토 론	임정호 구미기업발전협의회 회장 이현권 경북·구미반도체특화단지추진단장 임규채 경북연구원 사업지원본부장 신세용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기획조사부장 심규정 구미상공회의소 경제조사팀/기업유치팀장

「2026 구미 지역발전 세미나」 발표 자료의 주요 내용

<발표 1> 구미 주력산업의 수급 변화 및 공급망 충격과 지역경기의 연계성 분석 (김성수 경북대학교 교수)

- 팬데믹·지정학적 갈등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되면서 발생하는 부품·소재 조달 차질이 지역 산업과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필요
 -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하는 글로벌 공급망 압력지수(GSCPI)는 전 세계 물류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지만 특정 국가의 개별 산업이 직면한 조달 병목을 포착하는 데에는 한계
- ⇒ 국내 주요 산업에 특화된 공급망 조달압력 지수인 K-SCPPI(Korea - Supply Chain Procurement Pressure Index)를 개발하고, 동 지수가 지역 경제로 파급되는 경로를 분석
 - 반도체, 방위산업, 전자·모바일 등 구미 주력산업을 대상으로 핵심 중간재 가격과 수입물량에서 공통요인을 추출하여(PCA) 산업별 공급망 조달 압력 지수를 산정
- 분석 결과를 간략히 살펴보면,
 - ① K-SCPPI는 기존 글로벌 지표가 포착하지 못하는 ‘산업별 조달 제약’을 반영함에 따라 실물경제에 대한 설명력이 크게 제고
 - 반도체, 전자·모바일 및 방위산업 모두에서 GSCPI에 비해 생산, 수출 등 실물지표에 대한 설명력이 유의하게 개선
 - ② K-SCPPI는 조달 압력이 누적되어 시차를 두고 실물경제에 반영되는 동태적 모습을 나타냄
 - (반도체) 조달 압력이 발생한 이후 약 12개월에 걸쳐 수출·고용·지역내총생산(GRDP)에 대한 영향이 점진적으로 확대
 - (전자·모바일) 조달 압력이 발생하는 즉시 생산 가동률이 낮아지기 시작

하고 12개월 경과 시점에 고용 및 생산이 가장 크게 위축

- (방위산업) 정부 계약 중심의 구조적 특성으로 단기 외부 충격에 대한 완충 효과가 있어 지역 경기 지표와의 연관성은 상대적으로 낮음

③ 조달 압력이 실물경제에 파급되는 경로와 행태는 산업 구조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남

- (반도체, '수요 견인형' 구조) 경기 호황 시 설비·소재 수요가 급증하면서 조달 압력도 함께 높아지며 구미 수출·고용·GRDP와 양(+)의 선형 관계를 보임

- (전자·모바일, '파급형 제약' 구조) 해외 부품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 곧바로 지역 생산 감소와 고용 위축으로 이어짐

- (방위산업, '정책 의존형 안정 구조') 단일 수요처(정부) 중심의 장기 계약 구조로 운영되어 지역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임

④ K-SCPPPI는 충격의 영향이 1~2개월 만에 사라지는 단기적 특성이 아닌 장기간 지속되는 '구조적 공급 취약성'을 반영

- 변동성은 전자·모바일, 반도체, 방위산업의 순으로 나타남

□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시사

○ K-SCPPPI는 생산 감소의 원인을 수요 부족과 공급 병목으로 구분하여 진단할 수 있는 구조적 분석 도구로 활용 가능

○ 반도체 및 전자산업에 속한 기업은 조달 압력 발생시 향후 1년 정도의 기간을 염두에 두고 재고 관리 및 공급선 다변화 전략을 검토할 필요

○ 전자·모바일 산업의 경우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 지역 고용 및 GRDP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한 만큼 기업의 핵심 부품 국산화, 다중 공급선 (Multi-sourcing) 구축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 요구됨

○ 방위산업은 B2G(정부 대상 납품) 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내재화된 밸류체인을 보호·강화하는 방향의 정책 대응이 바람직

<발표 2> 구미시 주력산업의 AX(AI 대전환) 전략 (최은빈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구미정책기획연구소 소장)

- 인공지능(AI) 확산으로 글로벌 산업구조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구미 국가산업단지는 생산인구 감소·가동률 저하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
 - AI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(국내 데이터센터의 81.2%가 수도권 소재), 대기업-중소기업 간 AI 도입률 격차(각각 49.2%, 4.2%) 등으로 지역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
- ⇒ 구미 주력산업의 AI 대전환(AX) 방향을 제시하고 단계별 실행 전략을 발표
- 구미는 60년간 축적된 제조 노하우와 삼성·LG·한화 등 대형 앵커기업 중심의 수직적 협력 생태계, 풍부한 전력·용수 인프라 등 AI 대전환의 핵심 기반을 보유
 - 삼성SDS(60MW), 쿼텀일레븐(100MW) 등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의 구미 유치에 확정되면서 '제조도시→AI 데이터 도시'로의 전환 기반이 마련
- 「글로벌 제조 AI 데이터 시티, 구미」라는 비전 아래 2032년까지 제조AX 앵커기업 10개사 지원, AI 전후방 기업 100개사 육성, AI 실무인력 1,000명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음의 4대 전략을 추진
 - ① (AI 대전환 인프라 구축) GPU 5만 장 이상 규모의 하이퍼 AI 데이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, 산업단지 내 분산형 에너지 자립 특구와 마이크로데이터센터를 구축
 - ② (주력산업 AI 전환) 구미 제조 현장 데이터를 학습한 '구미형 M.AX 파운데이션 모델'을 개발·확산
 - 반도체는 AI 기반 자율 공정, 방위산업은 AI 유무인 복합체계, 이차전지는 AI 기반 배터리 재사용(BaaS) 생태계로 각각 고도화
 - 다크팩토리(무인공장) 기반 시제품 파운드리 조성을 통해 중소기업의 초정밀·첨단 AI 제조환경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

③ (산업 AI 데이터 거점 조성) 제조 현장의 비정형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정제·공유하는 플랫폼 구축

- 지역 주력산업 전용 AI 데이터 스페이스 센터를 거점으로 '데이터 수집 → 가공 → AI 모델 학습 → 서비스화' 전 과정을 지원

④ (가치창출 AI 생태계 조성) AI 인재 양성, 스타트업 육성, 기업 밸류체인 강화를 통합적으로 추진

- AI 넥스트 리더 캠퍼스(기업 연계 실무인재 양성), 피지컬 AI 스타트업 필드(창업~정착 지원), 주력산업 리부트 전략(투자·보조금·보증 패키지) 등

□ 단계별 로드맵 수립·시행을 통해 글로벌 제조 AX 거점 조성을 추진

○ 1단계('26~'27): 제조 AI 인프라 집적화

- 데이터 집적단지 조성 및 AI 데이터센터 전후방 산업 집적

○ 2단계('28~'30): 제조데이터 서비스 확산

- 중소·중견기업 AI 환경 조성 및 데이터 가공·공유 생태계 구축

○ 3단계('31~'32): 국가 제조혁신 거점화

- 글로벌 제조 AI 팩토리 실증 및 산업별 맞춤형 AI 솔루션 보급